

코로나19 여파... 도내 사업체 퇴출 ↑ · 고용 ↓

“지역 영세사업체 우선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제시 자금조달 어려움 겪는 사업체 대상 정책자금 확대도

코로나19가 전북지역 사업체의 신규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오세훈 기획조사팀 과장과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정호진 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가 전북지역 기업의 진입·퇴출 및 고용 그리고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 외부 연구용역 결과다.

지난 10월 한은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분기별 확진자 수가 10%

증가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신규 사업체수가 각각 약 0.34% 0.67% 감소하고 제조업의 퇴출 사업체수는 0.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신규 사업체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조업의 퇴출 사업체수는 0.87%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분기별 확진자가 10% 증가하면 신규 사업체수는 0.5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별 확진자 10% 증가시 음식 숙박업의 임시 일용직이 0.06% 감소했고, 코로나19 수혜 업종인 정보통신업의 신규 창업과 고용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역 신규기업의 폐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국 대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 영세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세훈 기획조사팀 과장은 “코로나19로 따른 신규 사업체 진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과 폐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과 실질적 지원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의 인적정보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 · 교통 안전 최우선”

이창희 신임 익산국토관리청장 임명



제88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이창희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임명됐다.

8일 익산국토청은 전날 실시된 국토교통부 인사에서 이창희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신임 청장으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희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진천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를 졸업 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철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 청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청장은 국토, 토지,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직원의 원활한 소통으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청장은 “효능권 지역발전과 건설 및 교통분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에게 신망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서 가공한 최고의 맛 신동진 품종, 해외로 진출

‘지평선 상상에찬 쌀’ 미국에 10톤 첫 수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NH농협 무역을 통해 ‘지평선 상상에찬 쌀’ 10톤(10kg 1,000포)을 미국에 첫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을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김태근 농업협제지사부장 이정용 김제농협 조합장 변현 농업무역 수출인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지평선 상상에찬 쌀’은 제주도에서 가공한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신동진 품종이다.

상차식을 진행한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은 “지난 8월 30일 캐나다 수출과 이번 미국 수출에 이어 10월~11월 중에도 추가로 20톤이 수출될 예정이다”며 “이는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김제시의 정책과 농민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김제에서 생산되는 지평선 쌀의 품질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반증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8월 30일 캐나다 수출 이번 미국 수출은 지평선 쌀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입증된 것이어서 45년 만에 최대 쌀값 하락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김제시는 지속적인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정책으로 김제 지평선 쌀의 수출 증대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농협은 NH농협무역을 통해 지평선 상상에찬 쌀 10톤(10kg 1,000포)을 미국에 첫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을 지난 8일 가졌다.

서부산림청, 태풍 힌남노 인한 산림분야 피해상황 파악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투입 긴급 점검 나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림분야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가용인력 120여명을 투입하여 6~7일 긴급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15시 현재 피해상황이 확인된 함양군 오도재 소규모 산사태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장비 및 인

력을 동원해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출입통제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연내 복구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황성태 청장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견실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건설업체 수주비율 ‘전국 3위’... 작년 2.8% ↑

공사액 5조4460억원... 도, 대형사업장 찾아 홍보 ‘결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기침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도내 건설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액은 전년도 9조 3,500억원 보다 1,710억원(증 1.1%) 증가한 9조 5,21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북도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5조 4,460억원으로 57.2%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서 발주한 공사 중 도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액은 전체 5조 4,460억원(종합건설업은 1조 7,610억원, 전문건설업은 3조 6,850억원)으로 공사 수주비율은 각각 52.1% 60.0%에 달하고 전년 대비 2.8%, 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북은 본사 소재지를 전주에 이어 3위로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사업장 등을 방문해 지역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업체의 무공공도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확

용해 주기를 요청한 결과 ‘도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비율이 전국 3위’라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 7월 하도급지원 전달담을 신설, 공공기관·시군·대형건설공사·건설사 본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도내 우수 건설업체 홍보 책자를 설명하는 등 도내 건설업체 수주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노력해 새만금사업 지역기 업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지역 대형사업에 도내 건설업체 참여가 12.4%에서 25.7%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내 건설 수주액 증가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

김영우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도내 공공기관과 대형건설사업장 공동주택 현장과 건설사 본사 등을 방문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홍보한 결과가 건설수주액이 증가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 도내 건설업체와 장비, 인력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